

“월급 30만원”...장애인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현행법 노동력·능력 70% 이하 평가시 적용 제외 하한선 없어 제멋대로...노동착취·생활고 등 우려

광주지역 장애인 근로자들의 한 달 월급이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상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보니 자칫 장애인들이 노동착취 현장에 내몰릴 수 있는 데다 생활고로 인한 생계유지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8월 말)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장애인 근로자는 전국 기준 총 2만 4,523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8,971명, 2020년 9,005명, 2021년 6,547명이었다.

특히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지난해 36만 3,441원으로 작년과 비교해 8,349원(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의 경우 장애인종합지원센터 등에 확인해본 결과, 월 평균 20만~40만원의 임금이 책정됐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력과 능률 등이 70% 이하로 평가 될 경우 최저임금 적용제외 승인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근로자 20%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매년 치솟는 물가와 반대로 임금은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통계수치상 월 임금액수는 근로 시간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으니 사업주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신청 시 장애인 노동자들의 월 급여 실태는 더욱 비참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하한선이 없어 저급여 노동이 만연하고 자칫하면 노동착취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장애인들은 생활고에 허덕이고 자립 기반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보호직업장은 장애인들의 재

활·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운영해 낮은 임금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체장애인 근로자 김모씨(60)는 “나는 한 달에 40여 만원을 받고 있고 이 금액은 한 달 식비로도 부족한 게 현실이다. 나보다 더 적게 받는 장애인들은 정말 비참하게 살고 있기도 한다”며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적은 임금이라도 받고 일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에 서럽다”고 푸념했다.

유현섭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상임이사는 “가장 최고의 복지는 장애인의 일자리다.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며 “장애인들의 자립 기반 마련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승현 기자

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노동력 수준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금전적으로 환산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보호직업장에게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연간 130여 억원을 국·시비로 지원해주는 만큼 이들의 임금·작업 환경 등 노동실태 개선에 관심을 갖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보호직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횟수를 늘리며 장애인 노동 실태에 대한 꼼꼼한 지도·점검을 하겠다”며 “장애인들의 자립 기반 마련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승현 기자

오늘의 날씨

장성	-1~5	흑산도	6~7
담양	-2~6	구례	-1~7
화순	-1~6	곡성	-2~6
영광	0~4	완도	2~7
함평	0~5	강진	-1~7
무안	0~5	장흥	-3~7
영암	-1~6	해남	-1~6
진도	3~6	고흥	-2~7
신안	3~6	보성	-2~6

일출 07:41 일몰 17:33
월출 09:10 월몰 19:09

목포	만조 02:46 15:42	여수	만조 10:30 22:29
	간조 08:09 20:56		간조 03:43 16:34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없이 131

미접종자 ‘낙인’...방역패스 유효기간 불만 고조

자영업자들 “책임 전가”

정부가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PCR음성확인제)에 6개월 유효기간을 적용하면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들 사이에서 강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효력이 만료되면 노래연습장과 영화관,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이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한 3차 접종을 받아야 방역패스가 유효하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확인은 전자 예방접종증명 애플리케이션(앱) ‘쿠브’와 네이버, 카카오 등 전자 출입명부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으면 QR코드 주위에 파란색 테두리가 나타나고 인식기에 대면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온다. 미접종자 또는 유효기간 만료 시 ‘딩동’ 소리가 나고 이용을 제한하도록 알린다.

이를 위반할 시 이용자는 10만원, 업주는 과태료 150만원에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백신 미접종자들은 정부의 방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3일 오전 광주시 북구 선별진료소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온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김성훈 기자

역패스 조치에 대해 명백한 접종 강제라며 불만을 터트리기도 있다.

미접종자 대학생 윤 모씨(25)는 “백신을 맞지 않으려고 했는데 최근 대형마트까지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일상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미접종자를 다중시설에서 망신 주는

이런 방침이 방역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자영업자들도 정부가 방역패스 지침을 수시로 바꾸면서 현장에서 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자신들의 어려움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삼무지구 상인자치회 김기영 부회장은

“정부가 방역지침을 안 지키는 손님들에 대한 관리 책임까지 자영업자에게 전부 전가하는 꼴”이라며 “어떻게 하면 피해를 덜 보게 할까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고,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를 피곤하게만 만드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민빈 기자

아파트서 차량절도 10대 입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달아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에서는 절도 혐의로 A군(15)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 7일 오전 1시 41분쯤 광주 광산구 쌍암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쏜타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중학교를 자퇴한 뒤 가출한 A군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윤영봉 기자

주택 소방시설 의무설치 당부

광주 북부소방서는 주택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를 연중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소방 관련법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하고,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공간(실)마다 1개 이상 전장에 부착해야 한다.

/최환준 기자

교통사고 운전자 위기 순간 시민 심폐소생술로 목숨 구해

운전 중 의식을 잃고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구조한 시민의 선행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서구에 따르면 지난날 21일 오후 1시께 서구 한 도로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 차량이 반대편 차로를 침범해 정차중인 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상무1동 주민자치위원장 장성우(62)씨는 상황을 살피기 위해 차량으로 다가갔고 차 안에서 정신을 잃은 50대 여성 운전자 A씨를 발견했다.

장씨는 발견 즉시 A씨를 차량 밖으로 구출해낸 후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주변 행인에게 119 신고를 요청했다. A씨는 10여분 뒤 의식을 되찾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장씨는 “그 상황이었으면 누구라도 했을 일이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서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위기 상황에서 이웃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DASCO
Development. Advance. Solution. Co., Ltd.
www.dasco.kr

창조와 혁신을 통해 100년 기업으로!!

다스코(주)는 흥익인간의 이념과 정신을 계승하여 생명을 존중하고 고객이 감동하며 보람을 공유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매출 5,000억원 목표

SOC사업

가드레일 / 교량난간 / 터널 방음벽 / 방음벽

신재생 e.사업

육상태양광 / 수상태양광

건축자재사업

합판탈형 데크플레이트 / 스틸 데크플레이트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WBM사업

구조용 선조립 / 용접철근(WBM)
BIM모델링

신기술 개발 선도업체 다스코가 4차산업을 주도하겠습니다.

본 사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동농공단 26-2 TEL. 061)370-2144

서울지사 서울 송파구 법원로 9길 26 H비즈니스파크 C동 801호 TEL. 02)3440-7800

당진1공장 (데크플레이트)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면천로 1361-15 TEL. 041)431-8200

당진2공장 (단 열 재)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합덕산단1로 50 TEL. 041)431-8259

영 남 지 사 부산시 동구 초량동 29 KCA빌딩 405호 TEL. 051)518-3702

새만금공장 (WBM)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동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산 블럭 2로트